

순창군 “고령층 경제부담 뚝” 임플란트·백내장 의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플란트·틀나·백내장·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순창군은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65세 이상 주민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구원 수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8만3365원·지역가입자는 12만3644원 이하가 해당된다.

단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70세 이상 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가구원 수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5만1148원·지역가입자 8만3625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의료 항목별로 차등 적용된다. 임플란트는 개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

틀나(의치)의 경우 보험적용 의료비의 50%를 보조하고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당 최대 25만 원·양쪽 수술 시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는 한쪽 기준 50만 원 양쪽 모두 수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의료복지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창=하병수 기자 hbs@skyedaily.com



순창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순창군

소상공인 노후시설개선 추진 순창군, 최대 300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달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같은 기간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시설의 증개축 및 수선 △주요 장비 및 미품 교체 △그릇 및 포장재 교체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등으로 총사업비의 50%(부가세 제외) 이 내·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재산세 등 과세 내역 연 매출액·거주 및 영업 기간·사업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모범업소·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가점을 부여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시설개선 사업이 고물·과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하병수 기자 hbs@skyedaily.com

밀양시, 체류형 문화도시 성큼... 인프라 확충

부북면 연극교육체험관·청년연극인 센터 내년 준공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비 320억 원 투입

경상남도 밀양시가 밀양아리나를 중심으로 공연예술 인프라와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확충하며 체류형 문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밀양시시는 부북면 밀양아리나 일원에 밀양연극교육체험관과 청년연극인 센터를 조성해 문화예술 창작과 체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양연극교육체험관은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착공,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블랙박스 공연장(154석)을 비롯해 전시체험공간과 교육실 등이 들어서 연극 교육과 체험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에는 78억 원 규모의 청년연극인 센터가 함께 들어선다. 숙박형 체류공간 20실을 갖춘 이 시설은 창작 활동과 장기 체류를 지원해 청년 예술인 중심의 연극 생태계 완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삼문동 구 법원 부지에는 밀양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건립 중이다. 총사업비 320억 원이 투입되며 교육·전시·공연 기능을 갖춘 무형유산 전수 거점으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는 전액 국비 457억원이 투입되는 국립 무형유산원 밀양본원이 올



밀양시 관계자들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밀양시

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영남권 무형유산 행정·연구·교육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향교 일원에 44억 원을 들여 80면 규모의 공연 주차장을 조성해 도심 문화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의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정곤 부시장은 “밀양아리나와 무형유산 거점시설, 도심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문화·관광·체류가 선순환하는

도시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밀양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밀양=박자연 기자 newsdaily1@naver.com



일광도서관 종합자료실. 기장군

기장 일광도서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작년 11월 개관, 디지털사서시스템·반납기 등 갖춰 하루 평균 열람 도서 1400여 권·대출 도서 500여 권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일광도서관이 작년 11월 14일 개관 이후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이용 속에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일광도서관은 연면적 3031.6㎡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강의실 등 다양한 문화·학습 공간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특성과 주제로 관련 도서를 포함해 인가우수·추천 도서 등 약 6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또 미래형 도서관 서비스 구현을 위해 디지털사서시스템과 자가대출·반납기 등 총 12대의 무인·디지털 기기를 도입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서는 미디어아트 체험과 전시를 상시 운영해 독서와 디지털 콘텐츠가 결합된 이용 환

경을 제공하고 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일평균 이용자 수는 약 70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열람 도서는 약 1400권, 대출 도서는 약 500권에 이르는 등 개관 초기 단계임에도 도서관 이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단위 이용객과 인근 생활권 주민들의 방문이 많아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찾는 공간은 물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형 구조와 우수한 전망을 갖춘 열

람 좌석 등 쾌적한 환경으로 학생과 성인 이용자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일광도서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일광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종복 군수는 “도서관이 주민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자 지식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화순군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쏙니다”

청년 지역정착 효과 특목 신혼 321쌍에 17억 원 지급

전라남도 화순군 결혼장려금 정책이 청년층의 결혼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을 이끄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16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에서 결혼하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과격적인 제도를 통해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화순군은 2021년부터 전남 도내 최고 수준의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해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 후 5년간 매년 200만 원씩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책 시행 후 현재까지 총 321쌍의 신혼 부부에게 17억 원의 결혼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52쌍은 최대 지원금인 10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지급 대상 부부 중 근무지 변경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28쌍에



화순군에서 결혼하면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화순군

불과해 대부분의 부부가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장려금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화순을 생활 터전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정주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순군의 결혼장려금 정책은 청년층의 결혼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정착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초혼이며 혼인 신고 후 부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다.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 청년층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 출산 후 또는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해 화순에 주민등록을 두면 최초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외에도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주택 제공·24시 어린이집 운영·출생기본소득 지급·출산·양육 지원금 등이 있으며 결혼부터 출산·양육까지 이어지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은 청년층의 결혼과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다”라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화순에서 행복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순=하병수 기자 hbs@skyedaily.com

부산항만공사, 대교동 호안 내진성능 보강공사 완료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북항 대교동 호안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부산항 내 BPA가 관리 중인 계류시설 6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교동 호안은 현재 예부선 선박들이 접안하는 계류시설로 사용 중이다.

BPA는 공사 구역 내 계류 선박들로 인한 공사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에 앞

서 예부선 협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 예부선들의 대체계류지로 연안여객터미널 선석을 확보하고 선박 이동을 적극 독려하여 관련 선박들의 이선 조치 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 대교동 호안 내진성능 확보로 계류시설 68개소 전반에 대한 내진성능이 100% 확보되면서 항만 운영의 안정성과 재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다수의 이용자와 인근을 왕래하는 시민들이 상시 접하는 항만시설의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상근 사장은 “이번 대교동 호안 내진성능 공사 완료를 통해 부산항 주요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기반을 확충했다”며 “앞으로도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양산시가 13일 2026년 재난관리평가 대비 실무자 회의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진행했다. 양산시

양산시, 안전한 환경 조성 ‘만전’

재난관리평가 회의... 협업 강화로 대응체계 고도화

경상남도 양산시는 13일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 대비해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재난관리평가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16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재난관리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 항목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2026년 재난관리평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평가 지표와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부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으며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각종 안전사업 추진 상황과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표 이행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양산시는 이번 실무자 회의를 계기 부서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 회의와 교육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숙 시민안전과장은 “재난관리평가는 시민안전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대비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산=박자연 기자 newsdaily1@naver.com